



윤 램(스페인)이 10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545야드)에서 열린 제87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을 결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그린 재킷'을 입고 트로피를 든 윤 램. /연합뉴스

## KIA, 한화·키움 상대 컨디션 끌어올리기

### T 타이거즈 전망대

양현종-앤더슨-이이리 출격  
루키 윤영철 15일 고척 선발

구상과는 다른 출발을 한 '호랑이 군단'이 페이스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KIA 타이거즈는 힘든 한 주를 보냈다. 김도영의 부상에 이어 나성범의 부상 공백 소식이 들려왔고, KT 위즈와의 주중 3연전은 모두 비로 취소됐다. 4·6일에는 빗속의 승부를 하다가 노계임이 됐다. 특히 4일은 3-1로 앞선 4회초에 노계임이 선 언돼 아쉬움이 컸다.

부상·날씨 여파로 선수단 운영과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KIA는 홈에서 치른 첫 3연전에서는 1승 2패에 만족해야 했다.

앤더슨은 시즌 개막전에 이어 7일 홈 개막전 선발로 나서 7.1이닝 3실점(2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고, 9일에는 8회 무사 만루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졌다. 이날 경기가 2-3, 1점차 패배로 끝났던 만큼 '약속의 8회'가 아닌 '야속한 8회'가 되고 말았다.

김도영과 나성범이 전력에서 이탈한 가운데 김선빈도 개막전에서 당한 발목 부상으로 지난 주 제 몫을 하지 못했다.

개막시리즈에서 4안타를 만들었던 박찬호도 페이스가 푼 떨어졌다. 스프링캠프 기간 부상으로 기술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고, 시범경기 중반 합류하면서 실전도 부족했다. 그 영향이 타격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전감각이 떨어진 시즌 초반, 비로 경기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봄비를 맞으며 야간 경기를 소



윤영철

화하느라 타자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선발진도 상황은 비슷하다. 캠프에서 실전이 부족했고, 메디나와 양현종은 KT전에서 선발로 나와 헛심만 썼다. 양현종과 이이리는 WBC에도 참가하면서 시즌 준비 과정에 변수가 많았다.

부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디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어수선한 한 주를 보낸

KIA는 주중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홈 3연전을 펼친다. 주말에는 키움 히어로즈와 원정 3연전을 갖는다.

KIA는 봄비로 인해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했다.

5선발로 낙점된 '고졸 루키' 윤영철이 최대한 부담 없이 1군 데뷔전에 나설 수 있도록 좋은 기억이 있는 고척에서 선발 등판을 하도록 했다. 15일이 'D-데이'다.

앞서 윤영철은 8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퓨처스 경기를 통해서 프로 첫 경기에 나서 위망업을 끝냈다. 이날 윤영철은 6이닝 9피안타 3볼넷 5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경기가 16-4 대승으로 끝나면서 윤영철은 승리투수가 됐다.

새로운 한 주 마운드 스타트는 양현종이 끊는다. 양현종을 시작으로 앤더슨-이이리-메디나가 출격해 페이스 올리기에 나선다.

KIA 타자들도 감잡기에 나선다.

KIA는 개막 이후 SSG의 김광현과 맥카티에 이어 두산과의 3연전에서는 알칸타라-최원준-곽빈을 상대로 만났다. 만만치 않은 투수들과 대결했던 타자들은 마운드 고민 중인 한화를 상대하게 된다.

새 외국인 선수 스미스가 개막전에서 근육 손상을 입으면서 엔트리에서 빠졌고, 번번히 불펜 뒷심싸움에서 밀리면서 한화는 올 시즌 1승 6패, 0.143의 승률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상·날씨 악조건 속에서 어려운 한 주를 보냈던 KIA가 마운드 고민 중인 한화를 상대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적과의 싸움도 해야 한다. KIA는 지난 주 3경기에서 6개의 실책을 기록, 경기당 평균 가장 많은 실책을 기록했다. 수비에서 승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집중력 있는 승부가 필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하성, '골프 스윙'으로 시즌 2호 홈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내야수 김하성(27)이 기가 막힌 '골프 스윙'으로 시즌 2호 홈런을 날렸다.

김하성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 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방문 경기에 6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6-0으로 앞선 5회초 투런포를 터뜨렸다.

그는 1사 3루 기회에서 바뀐 투수인 좌완 루커스 리트키를 상대로 스트라이크 2개를 흘려보낸 뒤 볼 2개를 잘 잡았다.

이어진 5구째 시속 122km '스위퍼'(슬라이더성 변화구)가 날아왔다. 헛스윙을 유도하는 공이었다. 리트키의 공은 마치 폭포수 같았다. 땅에 스칠 정도로 낮게 떨어졌다. 김하성은 이 공에 반응해 마치 골프하듯 어퍼 스윙으로 타격했고, 배트에 맞은 공은 좌측 담을 넘어갔다. 마치 묘기의 한 장면 같았다.

그는 지난 4일 애리조나다이아몬드백스전 이후 6일, 5경기 만에 홈런을 때렸다. /연합뉴스

## 윤 램 마스터스 우승 '그린 재킷'

임성재·김주형 나란히 16위

윤 램(스페인)이 남자 골프 올해 첫 메이저 챔피언이 됐다.

램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545야드)에서 열린 제87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180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램은 공동 2위인 필 미켈슨, 브룩스 켈카(이상 미국)를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램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1년 US 오픈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마스터스 우승 상금은 324만 달러(약 42억7000만원)다.

스페인 선수의 마스터스 우승은 2017년 세르지

오 가르시아에 이어 올해가 6년 만이다.

현재 세계 랭킹 3위인 램은 이번 우승으로 세계 1위를 되찾았다. 램은 올해 2월 세계 1위에 올랐다가 3월 중순에 스코티 셰플러(미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상태였다.

램은 올해 1~2월에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3승을 거뒀고, 이번 우승으로 투어 통산 승수를 11승으로 늘렸다.

또 지난해 6월 출범한 LIV 골프와 PGA 투어의 대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마스터스 우승을 LIV 선수인 켈카나 미켈슨에 내줄 뻔한 위기를 막아낸 PGA 투어의 영웅이 됐다.

한국 선수는 임성재와 김주형이 나란히 2언더파 286타로 공동 16위에 올랐고, 이경훈이 1언더파 287타로 공동 23위다. 김시우는 1오버파 289타를 치고 공동 29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프로배구 2022-2023 V-리그 시상식에서 정규리그 MVP를 수상한 흥국생명 김연경(왼쪽)과 대한항공 한선수가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선수·김연경 프로배구 정규리그 남녀 MVP

'배구여제' 김연경(35·흥국생명)과 대한항공의 주전 세터 한선수(37)가 프로배구 정규리그 남녀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김연경은 1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시즌 V-리그 시상식에서 사상 두 번째 만장일치로 정규리그 MVP의 영예를 안았다. 한선수는 남자부 세터 최초로 정규리그 MVP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김연경은 기자단 투표 31표를 모두 휩쓸었다. V리그에서 만장일치 정규리그 MVP가 나온 건

2018-2019시즌 이재영(당시 흥국생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아울러 김연경은 개인 통산 5번째 MVP를 차지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다시 썼다.

여자부 최다 수상 2위는 양효진(현대건설), 이재영, 이효희(한국도로공사) 등 3명으로 2회씩 수상했다.

남자부에선 OK금융그룹의 공격수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가 3차례 받았다. /연합뉴스